

재벌개혁 로드맵과 아우구스투스 좌우명



[전광우·손현덕 통쾌한 경제 - 16] 지난주 '1997년 외환위기 후 20년, 한국경제 새 길을 찾자'라는 주제로 열린 국제컨퍼런스에서 앤 쿠루거 전 IMF 수석부총재와 대담하던 중 '성장동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벌개혁을 추진할 방법'에 대해 물었더니 그의 답은 '갑자기 미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이라는 조크로 청중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재벌개혁을 포함한 기업 지배구조개선 이슈는 과거 IMF위기 이후 계속 제기된 문제로 우리경제의 아킬레스건이지만 구체적 실행방안의 어려움을 지적한 겁니다.

신정부 출범과 함께 재벌개혁이 급물살을 탈 조짐입니다. 최근 주요인선을 통해서도 재벌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고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되어있습니다. 다만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다'는 말처럼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 형태에 대한 답이 쉽지 않아 딜레마지요. 그렇다면 재벌개혁은 시대적 과제임에 틀림없는 만큼 올바른 길과 잘못된 길에 대한 성찰은 중요한 시점입니다.

재벌개혁이 가야할 길은 자유시장경제의 원칙, 공정경쟁질서의 확립, 그리고 재벌의 자발적 개선노력이라는 세 트랙입니다. 기업의 자발적 혁신을 특히 강조하는 이유는 재벌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라기보다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야 실효성 있는 재벌개혁이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사실상 지금과 같은 소유·경영의 세습은 이제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고 앞으로 지속가능하지 못합니다. 국내 핵심 대기업의 최대주주는 이미 국민연금으로 바뀌고 있고 이 추세는 향후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계획과 함께 더욱 심화될 전망이죠. 최근 발표된 '국민연금기금 중기(2018-22년) 자산배분'에 따르면 현재 110조 규모의 국내주식투자는 5년 후 근 200조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너 지배력 약화는 필연적이고 재벌체제의 연착륙을 스

스로 준비해야 한다는 애깁니다.

나아가 진정한 재벌개혁의 성공은 우리 사회전반에 걸친 의식과 지배구조 개선, 책임성·투명성제고 노력이 수반되어야 가능합니다. 정치혁신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고 국민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종교계 일탈도 극복할 문제입니다. 교회의 주인도 아닌 대형교회 목회자의 세습이 버젓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재벌오너의 경영세습만 탓하긴 어렵겠지요.

재벌개혁이 피해야할 길은 무엇보다 정치적 압박과 과도한 규제입니다. 정치권이 드라이브하는 소유·지배구조 개편은 대체로 득 보다 실이 큽니다. 세계경제포럼(WEF) 평가에서도 나타나듯 한국 정치시스템이 기업경쟁력보다 훨씬 뒤쳐진 후진국 수준인 마당에선 더 그랬지요. 최근 대우조선 사태는 정치·정부의 경영개입이 얼마나 큰 국민적 부담을 키우는지 잘 보여줍니다. 정치적 독립성이 결여된 국민연금의 주주권을 동원한 재벌개혁은 더더욱 경계할 일이고요. 불법승계나 불공정특혜 등 시장질서 훼손요소 제거에는 공감하더라도 과도한 규제→기업환경 악화→투자이익 감퇴→일자리 축소라는 악순환은 피해야합니다.

로마제국의 초대 황제이자 로마 최고전성기, 팍스로마나 시대를 연 아우구스투스는 ‘천천히 서두르라’(Festina Lente)라는 좌우명을 국정운영의 모토로 삼았다고 합니다. 개혁의 성패는 신정부 초반에 달렸다고 하지만 의욕이 너무 앞서서 오버하진 말라는 의미입니다. 올바른 경제개혁의 지향점은 자유시장경제의 장점은 살리되 부작용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절제된 정부역할을 필요로 하고 기업책임성은 높이되 경제역동성은 떨어트리지 말아야한다는 뜻이죠. 국가정책 실행을 학교 실험실에서 하듯 해선 안 되는 이유는 자칫 피해와 비용을 되돌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국민연금이사장]